

2011년 1월

<http://ewhagirls.net/ny>

발행인: 이정화 편집인: 전명혜, 이화인



# Ewha Newsletter

## 대뉴욕지구 이화여고동창회 연례만찬

2011 새해를 맞이하여 이화가족 여러분의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오니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1년 2월 12일 (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Grand Ballroom, DoubleTree Hotel (구, Hilton)  
2117 Rt 4 East, Fort Lee, NJ 07024  
201-461-9000
- 회비: \$100(1인), \$180(Couple), \$50(이화동문 2세)



이화 Dance동호회: 'Carmen(Paso Doble) Showcase' – 2010년 동창회 연례만찬

**회장인사**

2011년 새해를 맞아 이화의 모든 가족들께 건강과 축복  
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우리 이화동창회 모임을 부러워하는 얘기를  
을 가끔 듣습니다. 이화동문들의 모임이 어디가 어떻  
게 다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화는 이역만리 반가워하지도 않는 낯선 나라에서 그 불우  
한 여성들과 여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여생을 바친 Mary Scranton  
선교사님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화는 일제치하에서 압제와 속박, 불의를  
죽음으로 맞선 유관순 열사의 열정과 용기입니다. 이화는 배움터에서 자유  
와 사랑과 평화의 참 뜻을 심어주신 신봉조 이사장님과 여러 은사님들입니  
다. 이화는 세계 구석구석의 오지에서 어렵고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소리  
없이 일하는 수많은 동문 선교사님들입니다. 이화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  
심히 기여하고 봉사하는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이화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저력의 뿌리입니다.

이화의 교정에서 이화의 햇볕과 그늘에서 꿈을 키웠기에, 무엇보다도 이화  
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주위와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화는 한결음 앞서가는 인물에게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관대함이며,  
뒤처지는 주위와 이웃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화인들은 개성의 자유로움 안에서도 사랑의 조화를 이루며, 항상 자라기  
를 고집하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이며 울창한 숲입니다. 이화인들은 사랑  
으로 자라기에 따뜻함으로 주위를 밝히는 아름다움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 이화동창회는 이 사랑으로 항상 푸근하고 따뜻한 선후배님들의 모임  
입니다. 이화의 모임이 귀하고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2011년 1월 17일

대뉴욕지구 동창회장 이정화(66) 올림

**뉴욕동창회 임원** (2010-2012)

회장	이정화(66)	jhleepark@yahoo.com	516-384-6772
부회장	양경숙(65)	sonmonica@yahoo.com	201-951-9507
총무	전명혜(69)	mhzi123@yahoo.com	516-850-3526
서기	이영희(66)	baduki@live.com	917-679-5555
	최황숙(71)	hwangsookchung@gmail.com	908-358-5630
회계	김정인(67)	junginyang@bnbbank.com	201-394-0025
	오봉희(74)	bongheelee@gmail.com	201-390-0959
홍보	이화인(74)	whainkang@gmail.com	201-838-8436
합창단장	이채임(66)	chaeim.lee1@gmail.com	917-446-2968

**기대표 연락처**

기	성명	집전화	Cell
46	한명숙	201-445-7161	201-220-1252
49	박이자	212-595-9866 rijapark@hotmail.com	917-656-3501
51	김송옥	516-791-9680	
52	이보영	718-961-9075 nyspkim@yahoo.com	973-462-2841
53	김옥석	914-686-7131	
54	원숙자	201-585-2942	
55	강홍순	201-224-6006	201-819-9084
56	박정희	718-899-0655	
57	이선덕	718-961-0914 kasbsc@aol.com	646-417-3323
58	박기준	617-277-0730 keecpark@msn.com	857-272-3958
59	박순자	212-689-5134	
60	이청미	973-696-0364	
61	조성임	845-354-9165 sungyimhan@gmail.com	703-203-0864
62	전명자	516-367-8223	516-521-9839
63	손종임	203-926-9755 jilee45@yahoo.com	203-610-2246
64	문성자	914-693-2364 chunchonydf@msn.com	
65	양경숙	973-333-5675 sonmonica@yahoo.com	201-951-9507
66	이영순	914-238-4274 youngsoon@mac.com	914-912-4702
67	오선숙	845-627-0459 sunsookoh@hotmail.com	
68	노연숙	201-567-5924 yunyu45@hotmail.com	201-965-7489
69	이상은	201-337-1409 mamadoremi@gmail.com	551-206-1051
70	김정선	516-933-8545 sunnykim25@gmail.com	516-903-3364
71	최황숙	908-665-9560 hwang714@msn.com	908-358-5630
72	김현애	201-363-9185 hyunaikimhah@daum.net	917-570-2709
73	이상은	201-262-1246 selee54@hotmail.com	201-952-5117
74	박영옥		201-303-1212 irenenpark7@gmail.com
75	이혜정	551-404-7818 michele@njfm.net	
76	신혜진	516-869-0769 jinseng57@hotmail.com	917-443-8798
77	박미희	516-827-7355 mickymihee@gmail.com	516-508-1188

## 2010 동창회 연례만찬

2010년 2월 20일, Flushing 대동연회장에서 150여명의 이화동문님들과 사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뉴욕지구 이화여자 고등학교 뉴욕동문회 연례만찬이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guest로 이보영 동문(52)의 동생이신 이시영 전 유엔대사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사회자 이화인 총무의 개회사로 시작해 학창시절부터 항상 모이면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로 다시 한 번 교정에서의 추억을 상기하며 김수자 전 회장님의 기도와 최성남 회장의 인사말로 동창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에는 댄스와 유머로 동창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송미숙(83) 동창의 사회로 이화동문 합창단의 합창, 성악가 임옥자(65)동문의 축가와 댄스동호회에서 준비한 'Carmen(Paso Doble)showcase'로 펼쳐진 이화동문들의 화려한 무대가 이날의 highlight였다. 푸짐한 많은 상품중에서 fur scarf는 서울에서 특별히 참석한 윤현주 교수(67)에게로, 제일 먼저 파티참석을 등록하신 신연자(63)동문과 참석자 중 막내인 정현희(96)동문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또 부부 동반으로 오신 동창들에게는 김선애 동문(66)이 기증한 포도주 한 병씩을, 제일 많은 동창이 참석한 66년도에게는 신혜진 동문(76)이 기증한 쌀표가 주어졌다.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아쉬움을 달래며 2011년도 연례만찬을 기약하며 해어졌다.

## 뉴욕동창회 소식

- **워싱톤 DC 벚꽃관광:** 이화 동창회에서는 2010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워싱톤 DC 벚꽃관광을 다녀왔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창 21명, 이화사위님 3분이 아름다운 벚꽃 축제를 기대하고 갔으나 바로 며칠 전 벚꽃은 모두 지고 파란색의 벚꽃들만 보고 와서 조금 실망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회의사당, 백악관, 포토맥 강 크루즈를 즐기고 다음 날은 루레이동굴, Hershey's Chocolate Park을 견학했다. 매끼마다 푸짐하게 식사를 하고 관광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필요없을 정도로 우리끼리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워싱톤 DC 이화여고동창회 이정렬(57)회장이 빵, 과자, 과일 등을 잔뜩 가지고 호텔로 찾아오셔서 곳곳에 계신 우리 동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에도 이귀자(61) 동창의 부군이신 조남천 선생님께서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사진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 **이화 장학금 전달:** 뉴욕동창회에서 2010년 5월 15일 모교에 장학금 \$2,500을 전달하였다.
- **기대표모임:** 2010년 5월 8일 전 최성남 회장의 임기 마지막 기대표 모임을 Connecticut에 거주하고 있는 이금영 (56)동문댁에서 가졌다. 맛있는 점심과 장소를 제공하신 동문께 감사를 전한다.
- **정기총회:** 2010년 6월 동창회 정기총회를 뉴저지 아콜라 교회에서 가졌다. 지난 2년간 최성남 회장의 임기중 동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약 2만불의 기금을 마련하여 1만불로 시작한 이화장학기금에 더할 수 있었다. 이날 이정화(66) 동문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2010년 7월 1일 제 21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 **동문야유회:** 2010년 9월 Alpine Boat Basin and Picnic Area에서 60여명의 동문이 모여 즐거운 피크닉을 가졌다. 작은 나눔마켓을 열어 잠시동안의 세일을 통해 570불의 수입을 올렸고 재미있는 놀이와 점심 바베큐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역시 작년에 이어 송미숙(83) 동문이 레크리에이션을 이끌어 주어 다시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 **동창 주소록 발간:** 2007년 이후 대뉴욕지구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동창회 주소록이 편리한 수첩형으로 발간되어 배포중에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동문들이 많아져 최성남 전회장의 임기 중 주소록 database를 만들면서 이메일 주소도 넣은 작업이 있었다. 동문들간의 신속한 교류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현재 이메일을 사용하는 동문은 총 670명 중 56 퍼센트인 372명으로 작년 이맘 때에 비해 116 명이 늘어났다. 주소록은 각 기대표를 통해 전달 되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전명혜 총무에게 (516-850-3526) 연락하기 바란다. 또 새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동문의 주소 변경을 아시는 분들은 동창회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 **댄스동호회:** 이영희(70) 동문을 중심으로 시작한 댄스 동호회에서오는 2011 이화동문 파티에 선보일 showcase로 Salsa와 Cha Cha Medley를 준비하며 매주 월요일 연습하고 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한다. 건강과 즐거운 여가선용으로 함께 댄스를 연습하기 원하는 동문들은 이영희 동문께 연락하기 바란다. 연락처 201-694-5728
- **Longwood Garden Trip:** 2010년 12월 1일 동문 55명이 Pennsylvania에 있는 Longwood Garden 의 크리스마스 스페셜을 구경하며 동문들과의 우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이프 올랜드주로 Holiday Sing-along을 즐기고 가까운 남광선(72)동문댁에서 베푸는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기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동창회에서 정성어린 선물을 남광선 동문 부부에게 증정했다.
- **목요모임:** 이화 친목단체인 목요모임에서 20여명의 동문이 2010년 12월 9일 Madison Square Garden에서 열린 Cirque de Soleil을 함께 갔다.
- **기대표모임:** 2011년 1월 11일 뉴욕동창회 기대표들은 연례만찬 준비를 위하여 뉴저지 풍림식당에서 12시부터 모임을 가졌다. 이 날 이정화 회장의 사회로 새로운 임원진 소개 및 2011년 연례만찬에 이화동문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것, 임길재(29) 선배님의 100세 생신 축하연 참여 등을 의논하였고 준비해 온 새 이화동문 주소록을 각 기별로 나누어 주었다.

## 동창소식

- 이보영 (52) 동문이 2010년 8월 9일 플러싱에 있는 아리수 식당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진들을 격려해 주셨다. 참석자는 이보영 선배외에 이정화(66), 이영희(66), 이채임(66), 최성남(66), 전명혜(69), 최황숙(71), 오봉희(74), 신혜진(76) 이었다. 이날 부군이신 김박사님도 자리를 함께 하셨다.
- 이경자 (61) 의 부군 권영세 박사께서 11월 3일 별세하셨다. 권영세박사님은 재미한인의사회(KAMA)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뉴욕한인 개업의협회장 등을 역임하고 미주 한인 의료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
- 이귀자 (61), 조남천 부부 2인전이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일보 후원으로 맨하탄 첼시의 인터내셔널 센터(50 West 23rd St.)에서 열렸다. 이귀자 작가는 새벽이슬의 기운을 흡뻑 담은 꽃잎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한 회화작품들을 보여주었고, 남편 조남천 작가는 보여진 대상물에 재질, 특징을 독립된 하나의 시각적 대상물로 재창조해 낸 사진작품을 전시했다. [www.thecovenantjourney.com](http://www.thecovenantjourney.com)
- 김영자 (61) 동문은 월간 "문예사조" (2010년 12월)에 "망향" 및 2편의 시가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뒷면참조)
- 박순애 (66)동문 이 오랜 투병끝에 10월 9일 세상을 떠났다.
- 최성남 (66) 동문은 2010년 2월 19일에 Charles Rangel 뉴욕 하원의원으로부터 Community 봉사상을 받았다.
- 최성남 (66) 동문의 장녀 Jeannie Suk(석지영) 교수는 2010년 10월 28일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바드법대에서 종신교수(tenure)로 임용이 되었다. 또 2011년 1월 13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한인의 날'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받았다. <http://news.donga.com/3/all/20101213/33243703/1>
- 채문경 (66) 현 이화대학 음대교수는 안식년으로 뉴욕에 있는 동안 2010년 10월 21(목)에 Wall Street Trinity Church에서 300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Organ연주회를 마쳤다. 또한 10월 26일(화) 6시 UN Parish인 Church of Holy Family에서 연주가 있었는데 66년 동기들이 참석했다.
- 전명혜 (69) 동문은 2010년 4월 24일 DoubleTree Hotel에서 열린 글로벌 어린이재단 회원의 날 행사에서 이 재단에 헌신하여 발전시킨 공으로 공로상을 받았다.
- 신혜진 (76) 동문은 H&Y MARKET PLACE 리지필드점 특별 전시장에서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향 김두선의 생활자기전을 개최했다. 한식의 세계화와 발맞춰 한민족의 소박한 밥상을 지키던 우리 그릇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알리는 좋은 전시회였다. 곧 이어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2일까지 열렸던 ARTS & CRAFTS전은 불우한 이웃을 돋는 따뜻한 취지의 행사로 이화동문들의 관심어린 참여로 성황리에 열렸다.

## 북미주 동창회 소식

- 4차 총회: 2011년 8월 27일부터 29일 이화여고 창립 125주년 북미주 총동창회 총회를 Cleveland, Ohio에서 개최한다. 김정진(66) 회장을 위시한 북미주 임원들은 총회에 참석하는 동문들을 정성껏 모시기 위해 8월 27일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Ewha 장학 재단 모금운동: 북미주 동창회에서는 '이화 자율형 사립고 기념장학금'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10월 말부터 Baldwin여사의 뜻을 반들어 '\$88 for Ewha 장학 재단 모금 운동'을 시작 2011년 8월 말까지 1억원 목표를 세웠다. 북미주 동창회를 통해 Ewha Educational Foundation, Inc.로 보낸 기부금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문의: 회장 김정진(66) [jelmallawany@gmail.com](mailto:jelmallawany@gmail.com)

## 뉴욕동창회 합창단 소식



이채임 (66) 단장을 중심으로 한 뉴욕 동문 합창단은 2011년에 있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2010년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뉴저지 아콜라 교회에서 합창연습을 하고 있다. 2011년은 이화 동창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동창 음악회는 이화 동창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감사 그리고 자유 사랑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6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모든 행사는 서울 이화 총동창회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한다. (기념사업회 회장 고혜령: 010-3685-4147 이메일 [hesakoh@gmail.com](mailto:hesakoh@gmail.com))

이번 음악회의 동창합창단은 단일 연합 합창단으로 구성되며 지휘는 음악감독 윤현주 (67) 교수가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뉴욕동창회 합창단에서는 39명의 동문이 음악회 참가 신청을 했다. 음악감독 윤현주 교수의 이곳 New York 방문 연습은 오는 2월 7일, 14일, 21일이다.

2011년 합창단의 Concert 계획

- New York 연례 만찬: 2011년 2월 12일 DoubleTree Hotel
- 서울 이화음악회: 2011년 6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 북미주 총동창회 주관음악회: 2011년 8월 26, 27, 28일 Cleveland, Ohio

## 1955년도 이화여자 중학교 입학시험

김수자(61)

6.25 사변후 서울에 돌아온 시민들은 점차적으로 체계가 잡히기 시작을 하였다. 그 때에 과외 공부도 시작이 되어서 6학년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집에 모여서 과외를 했다.

이화여중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학생은, 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네에서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건만도 그 애가 꼭 합격 되기를 친부모님처럼 마음 조리며 큰 기대를 하곤 하였다.

시험 보는 날, 운동장에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시험표를 가슴에 달고 준비된 교실의 각자 자리에 앉았다. 첫째, 두째, 세번째 시험시간이 흐르고 또 시험용지를 받았을 때 모두들 놀랐다. 그 이유는;

- 1) 시험지 오른쪽 하단에 색종이가 붙어 있었다. 질문은 '여기의 두 가지 색을 배합하면 무슨 색입니까'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색, 시험지에 붙여진 색종이는 노랑색과 초록색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연두색이었다.
- 2) 여러 돌맹이가 있었다. 그 중에 차돌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 3) 꽃씨들이 있었다. 분꽃씨, 채송화씨, 해바라기씨, 나팔꽃씨 등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 때 벌써 이화는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였다. 3대 1의 경쟁 속에 치루어진 입학시험에 왔던 그 어린 여학생들은 다섯시간 필기시험을 보면서 한없이 천진난만하며 명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그 후 면접 시험의 모습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하고 앞을 보니, 오른쪽 책상에 두 분 면접하실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의사가 한개 있었다. 정면에도 또 왼쪽에도 똑같은 배열이 되어 있음이 눈에 들어 왔다. 정신을 차리고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선생님 앞에 서니 "앉아요"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앉고 나니 이것 저것 물어 보시고 "됐어요, 다음번 선생님한테 가세요"라고 하셔서 정면에 계신 분들께로 갔고 면접하고, 또 왼쪽에 계신 분들과 면접 후 모든 면접이 끝났다.

한 학생이 들어 올 때마다 그 많은 여리 선생님들께서는 주의깊게 보시고 의사에 앉으면 이것 저것 물으시고 친밀감 있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1886년 첫 한 아이가 이화에 입학이 됐을 때 얼마나 귀한 학생이었든가! 1955년 300여명의 학생을 입학시키면서도 학교 당국은 한 아이 한 아이 귀하게 맞이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이기에 그 한 학생이 귀하기에 우리 이화의 영문표기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EWHA GIRL'S HIGH SCHOOL"이다.

주입식으로 귀로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만 만족치 아니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으며,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원했고 그 행동이 여러 사람이 볼 때 흡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교육이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남에게 가르치며 지도자, 곧 "여성지도자"를 키움에 "한국여성이 한국여성을 교육할 수 있게"로 목표를 삼았던 이화학당 창설자 Mrs. 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선교사의 사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이화인은 한 개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주부로서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으로 광범위하게 포용성 있게 생활하며 내가 "Special"인 것처럼 상대방 모두를 "Special"인 것을 인정하며 조화 있게 삶을 살고 있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크게 호응 받으며 칭찬을 듣고 산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50년이 지난 중학교 입학시험 때를 생각하니 감개무량하고, 더우기 4명이 시험을 봤으나 그 중에 성적이 제일 모자라던 시험번호 694번이 합격되어 그 이화의 교육으로 인하여 "졸업후 개발된 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화의 교육, 산교육! 산위신 우리님 스승이 되시니 신앙교육! 1976년 이후 많은 제재가 있었으나 이제 다시 자율형 사립교로 인기를 받고 거의 일년만에 학교가 "만족도 제1위" "인기도 제1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이제 다시 우리 이화인은 대한민국 여성의 교육을 위하여 아니 전세계 여성의 교육을 위하여 큰 목표를 세우고 전심으로 노력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 이화, 이화,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



## Longwood Garden 방문후기

이영희 (66)



12월 1일! 2010년의 마지막 달을 우리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며 시작하였지요. 그 날 아침 세계 돌아치던 비바람은 우리의 여행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만드네요. 뉴욕동문들은 Flushing에서 8시에 출발 그리고 Ridgefield, NJ에서 9시에 뉴저지 동문들과 합류하여 50명이 동부관광 버스로 2시간여 걸려 세계적인 원예의 명소 Longwood Garden에 도착하니 어느 새 비는 그치고 푸른 하늘이 우리를 반겼다.

먼저 차로 와서 기다리던 9명의 71 학번 동문들의 환영을 받고 곧장 Luncheon을 시작, 우아하게 즐기고, Holiday Singalong 방에서 파이프 올갱 반주로 온갖 carol을 많이 불렀다(우리가 누군가? 이화하면 합창인데....). 끝나고 방음벽 실크 벽지 뒤에 거의 100년간 보관되어 온 1400여개의 올갱 파이프들을 뒷면 유리방 너머로 보며 감탄을 해댔다.

20여개의 방마다 각기 concept이 다른 크리스마스 장식은 우리를 황홀한 magical Christmas wonderland로 ... 중앙의 가장 큰 X-Mas Tree 앞에서 단체사진 찍을 때의 귀여운 동심의 표정들은 이화동산을 거닐던 때부터 키워온 것이리라.

Gift Shop에서 손주들 얼굴 떠올리며 선물 고르는 싼타 할머니들은 숙제를 미리 해결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들도 좋았어요. 한참을 걷고 나서 먹는 커피와 도넛은 Longwood garden에서 특별히 준비해 준 complementary라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았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전체 기념촬영하고 또 설레는 한 행사가 남았으니 우리 동창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광선 동문(72)의 저녁 초대! Longwood Garden에서 15분 정도 가니 커다란 (60명이 들어다쳐도 빙곳이 많은) 저택에서 남광선 동문 부부와 남광희 동문이 반가히 맞아 주셨다. 서양식은 한끼면 족하리, 한식 저녁이 인기짱! 시골에서도 아주 맛난 한식을 먹을 수 있음에 모두들 행복했다.

강연숙, 박이자 동문의 팔순생신축하를 끝으로 알짜 배기 일정의 하루를 즐기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동문 자매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정했던 시간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Goody bag 준비 등 잔 심부름 도맡아 해 준 이화인, 오봉희, 김순희 동문들과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신 동문들 감사합니다. 김정식 목사님의 기도와 축하 메시지, 행사 때마다 사진기록을 해주시는 조남천 장로님, 이정화 회장님을 외조하시는 Mr. 이정화님, Dr. 남 등 네분 Mr. 이화가 계셔서 든든했어요.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참고로, 수목원의 고목을 목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베어내던 1906년, 사업가이며 자선가였던 Pierre S. DuPont은 이러한 귀중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수준의 정원을 건설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디와인 밸리에 보물과도 같은 룽우드 가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 눈부신 분수와 즐거운 콘서트 및 공연, snack 뿐 아니라 formal 식사에 이르기까지 한 해 내내 여러 종류의 이벤트로 가득합니다.

## 모교소식

-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서 발전하는 이화:** 올해로 두 번째 신입생을 맞는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시에서 평균 경쟁률은 1.44대 1로 집계됐다. 전체 26개 자율형사립고가 2개 학교 중 한 곳 꼴로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져 평균 경쟁률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화여고는 3.03대 1의 높은 지원률을 나타냈다.
- 총동창회장:** 소비자 운동가이자 전 서울여대 교수인 송보경(63년 졸업)동문이 지난 12월 7일 총동창회 총회에서 제11대 동창회장으로 인준을 받아 2011년 1월 1일부터 동창회를 이끌게 되었다. 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음악회와 사진전 등이 열리고, 장학금 모금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바쁜 해에 북미주 동창들이 새 회장에게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 이화장학재단:** 이화장학재단이 12월 13일 첫 이사회를 열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북미주에도 곧 장학금 모금안내와 기부약정서가 도착하게 된다. 장학재단 이사장으로는 12월 말 총동창회장 임기가 끝난 장명수 동창(60년 졸업)을 선임했으며, 정창용 전 이화여고 교장(66년 졸업)이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동창회**  
EWAH GIRLS'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동 32

발신 이화여고 총동창회장 장명수  
수신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장 김정진  
제목 1. 11대 총동창회장 후보 선출  
2. 이화 장학재단 출범  
3. 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에 관한 건  
날짜 2010년 11월 26일

김정진 북미주 동창회장님,  
그리고 각 지역 회장님 여러분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 위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11대 총동창회장 후보로 송보경 동창(1963년 졸업)이 선출되었습니다. 송보경 동창은 사회적으로 널리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는 소비자 운동가이고, 여성지도자입니다.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필리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여대 교수로 복직하다가 정년퇴직 했습니다. 동창회장 후보는 전 교장, 전 동창회장, 현 동창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으며 오는 12월 7일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인증을 받아 내년 1월부터 회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2> 이화장학재단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로 동창 기부금으로 조성된 43억 원과 최근 모금된 돈을 합치면 50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미주 동창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장학금 모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겠습니다.

<3> 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준비과정에서 북미주 연합 합창 지역 문제로 남가주 동창회에서 이건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총동창회 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굳이 북미주 지회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지 말고 각 지역마다 따로 연습하도록 한 후 서울 공연에서는 윤현주 음악감독이 지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동창회**  
EWAH GIRLS'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동 32

이에 따라 지난 19일 동창회 회장단과 윤현주 음악감독이 모여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동창합창은 한국과 북미주를 합쳐 단일 연합합창단으로 구성하고 지휘는 윤현주 음악감독이 맡습니다.
- 북미주에서 합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동창들은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연습합니다. 내년 2월 윤현주 음악감독이 미국에 가서 각 지역을 방문하여 연습을 지휘합니다.
- 음악회에 관한 다른 사람은 지난 6월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의 총동창회가 음악회를 주관하고, 실행임원회가 음악회 준비위원회를 겸하며, 음악감독이 음악회 내용과 진행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동호인 모임 등에 '이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  
 총동창회에서 북미주로 보내온 8월 13일 공문중...

이화 동창들이 동호인 모임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임에 '이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모임이 이화 동창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활동을 하거나 이화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현지 동창회가 총동창회와 협의하도 '이화'라는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도 이화 동창합창단과 이화 예술합창단 등 두 개의 합창단이 있으며, 총동창회는 두 단체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화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동문회비를 내신 분들

### ▶ 2011 동문회비 납부명단 (2011년 1월 15일 현재)

박소희(46) 김옥석(53) 최화자(56) 곽복향(60) 민영수(62) 흥경애(63) 백영숙(65) 기화숙(66) 박혜자(66) 정진영(66) 이상은(69) 남광선(72) 한윤희(74)  
 한명숙(46) 오진환(54) 유병숙(56) 이정미(60) 이민자(62) 이수희(63) 손인경(65) 김광은(66) 순미(66) 지숙희(66) 임수경(69) 허록(72) 고혜경(75)  
 박이자(49) 장기숙(54) 이명자(57) 조소자(60) 전명자(62) 김유순(64) 양경숙(65) 김복영(66) 심재경(66) 최성남(66) 전명혜(69) 양혜숙(72) 한영국(75)  
 민인숙(50) 원숙자(54) 이선덕(57) 김명중(61) 정연자(62) 김증자(64) 우인숙(65) 김선애(66) 원인순(66) 박임자(66) 김정선(70) 이정은(73) 김경자(76)  
 김기자(51) 강홍순(55) 이순희(57) 김명세(61) 김국지(63) 문성자(64) 원건숙(65) 김안자(66) 유기자(66) 어해숙(67) 이영희(70) 김희숙(74) 신혜진(76)  
 김송옥(51) 김영주(55) 장정희(57) 김수자(61) 손종임(63) 박희선(64) 이금화(65) 김아리(66) 이영순(66) 조용남(67) 김양신(71) 박은옥(74) 인혜숙(76)  
 안종명(51) 김용희(55) 안영설(58) 이정강(61) 이군자(63) 서재숙(64) 이옥순(65) 김원경(66) 이영희(66) 김광희(69) 이영숙(71) 오봉희(74) 김순희(76)  
 안종인(51) 한종순(55) 유문화(58) 조원옥(61) 이문자(63) 안명희(64) 임옥자(65) 김희자(66) 이정화(66) 남광희(69) 이재은(71) 오성혜(74) 이승아(76)  
 강선희(52) 곽순영(56) 이선희(58) 이귀자(61) 이연수(63) 김근애(65) 전경옥(65) 박경원(66) 이종례(66) 박승화(69) 최황숙(71) 이주예(74) 박미희(77)  
 김오영(52) 노한순(56) 김정혜(58) 채영애(61) 이완실(63) 김미봉(65) 전금옥(65) 박선희(66) 이채임(66) 유보혜(69) 김옥희(72) 이화인(74) 황순덕(77)  
 이보영(52) 전월수(56) 박기준(58) 박기원(62) 한철자(63) 김연규(65) 정원(65) 박순애(66)

### ▶ 후원금 납부명단 (2010년 12월 말 현재)

박소희(46) 이보영(52) 안영설(58) 조소자(60) 채영애(61) 이문자(63) 김증자(64) 이정희(66) 이상은(69) 김옥희(72) 이화인(74) 안혜숙(76)  
 한명숙(46) 박영자(56) 유문화(58) 이정미(60) 이귀자(61) 이군자(63) 서재숙(64) 최성남(66) 전명혜(69) 허록(72) 이주예(74) 이화목요모임  
 박이자(49) 김정혜(58) 곽복향(60) 이정강(61) 전명자(62) 이수희(63) 박임자(66) 조용남(67) 이영희(70) 오봉희(74) 고혜경(75) 이화수요모임

이화갤러리



2010. 2. 20 - 연례만찬



2010. 12. 1 - Longwood Garden Trip



2010. 4. 9 - 워싱톤 DC와 루레이동굴 Trip



2010. 12. 1 - Longwood Garden Trip



2010. 5. 8 - 기대표 모임, 이금영(56) 동문 택에서



2010. 12. 1 - 박이자 (49), 정연숙(49) 동문의 80회 생신축하



2010. 9. 14 - 동창회 피크닉



동창회 임원진

# 망 향

김영자(61)

오늘도  
내 화장끼 있는 얼굴에  
햇빛 따스하게 비치고  
잔바람 보드랍게 스쳐 주는 날이지만

센츄럴파크 호수타는  
오리떼 찾노라면  
옛 수유리 집 새벽 뜰에  
참새 무리 날아들고

만하탄 변화한 거리  
방황하듯 걷노라면  
천년 숨길 노오랗게 스며있을  
덕수궁 담벼락 선명하고

내 어깨 넘어 스쳐오는  
냉랭한 이국 언어에는  
잔잔한 어머님의 속삭임  
가슴 깊이 저며 드네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26 Kelburn Ct., Hamburg, NJ 07419  
Tel (973) 864-5053, (516)384-6772

Stamp